

곡성군, 나들이철 주요 관광지 방역 강화



곡성군이 봄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진강 기차마을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관광지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시행해오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기차마을, 도립사, 태안사 등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총 12개소

에 30여 명이 투입됐다.

봄이 되자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4월 중하순경 섬진강변 철쭉이 만개하는 시점부터 5월 가정의 달까지 나들이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시행하

기차마을·도립사 등 총 12개소 30여명 투입 기본 방역지침에 이색 계도 활동도 진행 예정

는 것이다.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의 경우 관광객은 물론 직원들까지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발열 체크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스캔) 작성을 해야 한다. 기차마을 안에 있는 전시시설을 이용할 때도 전자출입명부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관광객들의 동선을 철저히 파악해 만약 감염이 발생할 경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다. 드림랜드, 미니기차, 레일바이크 등 놀이 시설 이용자들이 앞뒤로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해 대기선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취식이 가능한 쉼터의 테이블과 의자마다 '띄어앉기', '음식 섭취 후 마스크 착용' 등의 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했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개인방역 지침을 방문객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색 계도 활동도 진행된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한복문화 주간 행사를 맞아 포졸복장과 목소리 변조 마이크를 장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복 행사와 어울리는 계도활동으로 방문객의 위화감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 기차마을이 관광지임을 고려해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도 방안을 모색했다. 한복과 어울리는 포졸의 모습을 계도 활동과 접목시켜 방역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을 필두로 주요 관광지 외에도 야영장 등 관광숙박시설까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향후 방역인력 충원과 소독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빈집활용'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오는 30일까지 신청...리모델링 2천만원 지원

구례군은 4월 30일까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의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에 5년 기간의 협약을 체결 후 신청이 가능하다. 개소당 2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구례정착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구례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에게 보증금 200만원에 월1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고 마을과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입주기간 중 전기세 등 공공요금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순호 군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구례에 정착하여 인구증가와 농업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30일까지 구례군체육농업창업지원센터홈페이지(<http://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구례군체육농업창업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2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0년 ~ 2021년 2년 사업으로 작년에는 13개소를 조성하고 입주까지 완료했다. 올해는 1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에서 연장 가능한 11개소 중 3개소는 선정완료 후 조성 중에 있으며, 8개소에 대해 4월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제2회 예쁜 정원 콘테스트 개최

담양군이 지역의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는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개인 주택이나 카페, 음식점 등 단체와 시설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는 정원을 발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의 관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달빛정원, 명지원의 경우 산림청장이 후원하는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으며 정원문화를 일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가 희망자는 개인정원, 근린정원 2개 부문 중 선택해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정원의 특징과 사진을 담은 참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청년희망학교 문 연다...음악·예술 등 6개 강좌

6월까지 수강생 40여명 참여
과목별 10차(20시간) 진행
"청년 배움·문화 욕구 발굴"

나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희망학교' 문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희망학교는 청년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청년의 관심사와 배움의 욕구를 자유롭게 반영한 청년 맞춤형 소규모 그룹 강좌로 나주시청년센터 등에서 운영한다.

올해 청년 희망학교는 지난 2~3월 강사 공모를 통해 접수했던 21개 과목 중 교육생 40명의 수강 과목 신청 결과에 따라 음악, 예술, 영상분야 총 6개 강좌가 선정됐다.

운영 강좌는 '힐링 아크릴화', '나만의 DIY(Do It Yourself의 약자) 목공수업', '나만의 영상 작품 만들기', '쉽게 배우는 감성 크로키', '대금클래스', '당



신만의 특별한 취미, 해금' 반이다.

지난 13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순까지 과목별 10차(20시간) 시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8일 나주시청년센터에서 강사와 수강생 40여명이 참석한 '매칭데이'를 열어 강좌별 설명과 강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청년희망학교가 청년 간 소통 증진과 역량 개발을 통해 청년 문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의 배움과 문화적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 접종'

다음달 12일까지 6주간

화순군은 구제역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예방 접종은 소 사육 농가 562호 2만2447두, 염소 220호 1만3030두가 대상이다. 백신을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2주 내 도축 출하가 축은 제외된다.

접종 방법은 소 50두 미만과 염소 3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직접 접종하고, 소 50두 이상 전업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보조 100%)해 자가 접종하면 된다.

군은 일제 접종 기간에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예방 접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반상 회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백신 접종을 안내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2021년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 결과, 양성률이 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염소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재접종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군민의 심신이 지쳐있고 경제 활동도 위축된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축산 농가들이 확실한 방역 의식을 가지고 100% 예방 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